

일부 청소년에서 자살생각과 거주지역환경과의 융합적 관련성

신승옥¹, 박종^{2*}

¹동강대학교 간호학과, ²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Converged Associ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Among Some Adolescents

Seung-Ok Shin¹, Jong Park^{2*}

¹Department of Nursing Dongkang College

²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Medical School, Chosun University

요약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하나인 자살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거주지역환경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한 연구이다. 일부 광역시의 중,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4,509명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거주지역환경 인지 여부, 자살특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거주지역환경이 좋은 지역의 청소년은 1,805명, 좋지 않다고 인정한 지역의 청소년은 2,704명 이었다. 자살생각은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 12.9%, 거주지역환경이 좋은 경우는 8.8% 이었다.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 (OR=1.40, 95% CI=1.14-1.71)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거주지역환경에 대한 참여형 지역주민프로그램을 통해 거주지역환경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못한 지역의 청소년에게는 물질적, 정서적 융합적 지원을 통해 자살생각을 낮추는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주제어** : 청소년, 융합, 거주지역, 환경, 자살생각여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among some adolescents. The G city 4,509 people which is suitable for this research at was aimed against the adolescents among the survey data collected. On the area neighborhood environment recognizes was good 1,805 people, was not good was 2,704 people. Suicidal ideation was where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was bad 12.9%, good 8.8%. And in multiple logistic analysis, neighborhood environment was bad more significantly likely to be Suicidal ideation (OR=1.40, 95% CI=1.14-1.71). Therefore the residential zone environment needs to be monitored through the participation style local resident program. And it is regarded to find the plan that it lowers the suicide idea through the material and emotional converge support to the youth on the area where the residential zone environment is unable to be good in the national dimension

• **Key Words** : Adolescents, Converge, Environment, Neighborhood, Suicidal ideation

*교신저자 : 박종(jpark@Chosun.ac.kr)

접수일 2015년 10월 1일

수정일 2015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20일

1. 서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4년 10만 명당 3.7명에서 2014년 4.5명으로 청소년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청소년의 사망원인으로 고의적 자살이 2위를 차지하였다[1]. 또한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자주 있다'로 응답한 청소년이 4.6% 로 조사되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2]. 청소년의 자살 생각은 자살 시도로 연결될 수 있어[3]. 자살을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4]. 특히 자살을 생각해 보았거나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면 9년 뒤에 생존한 경우의 44%는 자살 재시도 경험이 있었다[5]. 청소년은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시기[6]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요구하는 역할과 학업성취를 위한 학교에서 요구하는 역할에서 영향을 받으며 발달단계를 거치게 된다.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해체가족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관계에서 오는 극단적 긴장감[7] 학업에 대한 부담감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자살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8] 또한 저소득 계층 청소년의 자살 생각이 높아 경제적 상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9].

거주지역환경은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거주하는 지역은 목표를 위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집합체로서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생활하고 있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권을 벗어나기 어렵다. 거주지역 환경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모인 환경에서 거주할 수 밖에 없는 특성도 있다. 하지만 거주지역 환경이 깨끗하고 원하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거주지역의 환경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보다는 이미 선택 받은 불평등한 환경에서 청소년은 생활하게 된다. 특히 빈곤층은 주거비가 저렴한 곳을 찾아 이주하게 되고 거주지역에 따라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거나 낙서와 쓰레기가 많이 있는 등 쾌적하지 못한 환경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은 학업 성취도와 행복감이 낮으며 우울감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1,12,13]. 또한 질병 발생이 높고 신체적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며 폭행 등의 발생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14].

청소년의 자살 생각여부의 심각성이 알려져 있지만 주로 다양한 스트레스 및 관계적 요인을 보는 연구가 있고, 거주지역환경이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 보는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신이 인지한 거주환경을 알아보고 거주지역환경과 자살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거주지역 환경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알고 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시행된 2013년 G광역시 청소년 마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조사는 교육청에 협조 의뢰를 하였고, 선정된 학교 및 학급별로 대상자에게 사전 동의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중 본 연구에 적합한 청소년은 총 4,509명으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2.2 측정도구

거주지역환경의 조사는 청소년 마음건강조사 문항 중 '학생이 사는 동네에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있나요?'에 대한 응답여부를 '예', '아니오' 로 구분하였다. 자살생각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의 문항을 '예', '아니오' 로 구분하였다. 자살시도 여부는 '최근 1년 동안 실제 자살시도를 해 본적이 있는가요?' 문항을 '예', '아니오' 로 구분하였다. 자살간접경험 여부는 '학생의 친구나 친척(가족) 중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있는가요?' 문항을 '예', '아니오' 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특성인 성별은 '남학생', '여학생' 으로 구분하였고, 학업성취도 및 경제수준은 '중 이상', '중 이하'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요인인 가족관계, 친구관계에 대해 '좋다', '나쁘다' 로 구분하였다.

건강행태 중 음주여부는 '최근 30일 동안 적어도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흡연여부는 '최근 30일 동안 1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문항을 '예', '아니오' 로 구분하였다. 질병여부는 '현재 오랫동안 앓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문항을 '예', '아니오' 로 구분하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PC 20.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수준 $p < .05$ 에서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 거주지역간 일반적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거주지역 환경 여부와 특성에 따라 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자살 시도 현황에 대해서는 빈도 및 백분율을 하였고, 거주지역 환경과 자살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거주지역 환경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거주지역환경이 좋다고 인정한 청소년은 1,805명이었고,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다고 인정한 지역의 청소년은 2,704명으로 총 4,509명이었다. 거주지역환경이 좋다는 남학생은 45.4% 이었고,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다는 남학생은 44.2% 이었다($\chi^2=163.032, p<.001$). 학업성취도는 거주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가 37.0% 이었다($\chi^2=5.307, p=.022$). 경제수준은 중미만 인 경우 중 거주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가 19.2%로 거주환경이 좋은 경우인 14.0% 보다 높았다($\chi^2=21.182, p<.001$). 음주를 하는 경우는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가 14.1%로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 11.9% 보다 높았다($\chi^2=4.480, p=.035$). 흡연을 하는 경우는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가 6.3%이지만 거주지역 환경

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chi^2=0.323, p=.612$). 질병이 있는 경우는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가 44.9%이었고 거주지역환경이 좋은 경우는 41.4% 이었다($\chi^2=5.317, p=.022$). 부모관계가 좋은 경우는 거주지역환경이 좋은 경우로 95.0% 이었고, 거주지역 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는 92.7% 이었다($\chi^2=9.882, p=.002$). 친구관계가 좋은 경우는 거주지역 환경이 좋은 경우가 98.0%,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 는 97.0% 이었다($\chi^2=4.577, p=.036$). 선생님 관계가 좋은 경우는 거주지역 환경이 좋은 경우가 97.0%,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는 95.9%이었고 거주지역 환경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chi^2=3.639, p=.064$).

3.2 자살특성

자살생각은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가 12.9%로 거주지역환경이 좋은 경우인 8.8% 보다 많았다. 자살 시도경험은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가 23.7%로 좋은 경우인 15.2% 보다 많았다. 간접자살경험은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가 8.4%로 거주지역 환경이 좋은 경우인 6.6% 보다 많았다<Table 2>.

3.3 자살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거주지역간에 각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을 투입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

(Table 1) Difference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Neighborhood environment

Characteristics		Neighborhood Good		Neighborhood Bad		x ²	p-value
		1,805	40.0	2,704	60.0		
		N	%	N	%		
Gender	Male	819	45.4	1,195	44.2	163.032	<.001
	Female	896	54.6	1,509	55.8		
Academic achievement	Mid-High	1,198	66.4	1,704	63.0	5.307	.022
	Low	607	33.6	1,000	37.0		
Economic status	Mid-High	1,553	86.0	2,184	80.8	21.182	<.001
	Low	252	14.0	520	19.2		
Drink alcohol	Yes	215	11.9	381	14.1	4.480	.035
	No	1,590	88.1	2,323	85.9		
Smoking	Yes	106	5.9	170	6.3	0.323	.612
	No	1,699	94.1	2,534	93.7		
Disease	Yes	747	41.4	1,213	44.9	5.317	.022
	No	1,058	58.6	1,491	55.1		
Relation with parents	Good	1,715	95.0	2,506	92.7	9.882	.002
	Bad	90	5.0	198	7.3		
Relation with friends	Good	1,769	98.0	2,622	97.0	4.577	.036
	Bad	36	2.0	82	3.0		
Relation with teachers	Good	1,750	97.0	2,592	95.9	3.639	.064
	Bad	55	3.0	112	4.1		

<Table 2> Differences of Characteristics of Suicidal according to Neighborhood environment

Characteristics		Neighborhood Good		Neighborhood Bad	
		1,805 N	%	2,704 N	%
Suicidal ideation	Yes	159	8.8	350	12.9
	No	1,646	91.2	2,354	23.7
Attempted suicide	Yes	23	15.2	80	23.7
	No	128	84.8	258	76.3
Suicide accident in neighbor	Yes	115	6.6	221	8.4
	No	1,631	93.4	2,404	91.6

과 같다. 학업성취도가 좋은 경우보다 나쁜 경우가 1.31배 ($P<0.001$)로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다.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가 1.42배 ($P<0.002$), 음주를 하는 경우 1.31배($P<0.039$)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관계가 나쁜 경우 2.56배($P<0.001$), 친구관계가 좋지 않는 경우가 4.39배($P<0.001$)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다.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가 1.40배($P<0.001$)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인지한 거주지역환경이 자살생각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청소년마음건강조사는 G광역시에서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다고 인지한 경우가 좋다고 인지한 경우보다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였으며 유의하였다. 거주지역환경의 무질서 개념에서 발달단계 관점에서 본 청소년이 인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15]. 이러한 환경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16]

인구학적 요인인 학업성적과 경제상태는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의 결과와 유사하였고, 학업성적이 낮거나 경제상태가 좋지 않는 경우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었다[17].

학업성취는 대학 성취와도 관련이 있어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아 미래에 대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다[18]. 특히 입시 및 취업과 관련하여 불안정한 미래를 생각하게 되므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를 갖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상태는 소득이 낮은 지역의 경우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19]. 경제상태로 인해 거주한 지역의 구성원들과 상호유대 관계가 적고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기제가 취약할 수 있다. 지역 간 공간 정보를 활용한 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을수록 우울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는 청소년이 많고 자살률이 높았다[20]. 따라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자살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Table 3> Associ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OR	95% CI	p-value
Academic achievement	Mid-High	1		<.001
	Low	1.31	1.15-1.69	
Economic status	Mid-High	1		.002
	Low	1.42	1.13-1.79	
Drink alcohol	No	1		.039
	Yes	1.31	1.01-1.69	
Disease	No	1		<.001
	Yes	0.68	0.56-0.68	
Relation with parents	Good	1		<.001
	Bad	2.56	1.91-3.44	
Relation with friends	Good	1		<.001
	Bad	4.39	2.93-6.57	
Neighborhood environment	Good	1		<.001
	Bad	1.40	1.14-1.7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Smoking, Disease, Relation with teachers

청소년건강행태 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 음주할 경우 자살 시도 위험이 2.4배 정도 높았다[21] 특히 의존형 알코올성 청소년은 9.3배 자살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2]. 또한 의존형 알코올성 청소년에 대해 단정하기에는 연구가 부족하지만 음주 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자살시도가 유의하다고 보고되었다[23]. 청소년의 음주는 제도상 허용되지 않지만 음주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 많은 것은 제도상에도 심각한 일이며, 음주로 인해 충동적인 행동의 결과로 자살 행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음주시작 연령을 높이기 위한 음주위험 예방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

부모와의 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관계가 나쁘면 자살 생각이 높았다. 가정폭력을 받은 청소년은 분노 조절의 문제가 생기고 자살 생각과 자살시도가 3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4]. 이러한 가정환경은 갈등의 관계로 이어지고 자살을 생각할 수 있다.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자살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하지만 안정적인 고 소통하는 부모관계는 자살위험성을 낮춘다고 보고되었다[25]. 본 연구에서 좋지 않는 친구관계는 자살생각이 높았다.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상호 교류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배우고 친밀감을 통한 애착관계 형성이 소외감을 덜 느낄 수 있다[26]. 또한 자살 생각을 낮추는 보호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27].

본 연구에서 거주지역의 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 자살생각이 높았다. 거주지역 환경 중 쓰레기나 휴지가 많은 지를 보는 물리적 무질서 및 동네 무질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19,23]. 거주지역 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낙인감과 낮은 자존감을 초래할 수 있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16]. 이는 낙인된 물리적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의 무기력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역환경이 열악할수록 가정폭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부모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28,29]. 거주지역환경이 좋지 않는 환경에 사는 청소년은 친구관계 및 부모관계가 불안정하고 불안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관계성의 문제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어 자살생각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거주지역 환경은 개인의 노력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좋지 못한 환경의 개선으로 정서적 불안감을 낮출 수 있고 이러한 불안감의 감소가 소외감을 덜어주고 심리

적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거주지역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참여형 지역 주민 프로그램을 통한 거주지역 환경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거주지역환경이 열악한 청소년에게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서적 만족감과 긍정적 자아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 환경을 보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횡단적인 연구로 시행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자살생각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 우울 등의 심리적 요인을 보는 연구는 보고되었지만 청소년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을 보는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향후 거주지역환경의 다양성을 고려한 청소년 자살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 [1]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4). "2014 youth statistics".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 [2] No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3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s rights III".
- [3] C. R. Pfeffer, G. L. Klerman, S. W. Hurt, T. Kakuma, J. R. Peskin, C. A. Siefker, "Suicidal children grow up: rates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suicide attempts during follow-up.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 32, No. 9, pp. 106-113, 1993.
- [4] G. Kumar, R. A. 1:Steer, "Psychosocial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25, No. 3, pp. 339-346, 1995.
- [5] B. Groholt, O. Ekeberg, L. Wichstrom, T. Haldorsen, "Suicide and non-suicidal adolescents: Different to self-esteem.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35, pp. 525-535, 2005.
- [6] E. H. Erikson, "The Life Cycle Completed: A Review, New York", W. W. Norton. 1982.
- [7] S. B. Seo, "A Study on the Adolescents' Suicide Factors. *Korean Journal of 21Century Social*

- Welfare", Vol. 8, No. 1, pp. 83-102, 2011.
- [8] J. Y. Park, "The effects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n adolescent suicide. Korean journal of youthstudies", Vol. 16, No. 10, pp. 249-272, 2009.
- [9] D. Dooley, J. Prause, "Mental Health and Welfare Transitions: Depression and Alcohol Abuse in AFDC Wom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0, No. 6, pp. 787-814, 2002.
- [10] J. Y. Jung, "The Neighborhood Effects on Juvenile Delinquency : A Special Focus of the Mediating Effects of Delinquent Friend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3, No. 1, pp. 89-119, 2012.
- [11] Brooks-Gunn J, G. J. Duncan, P. K. Klebanov, N. Sealand, "Do neighborhoods influence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9, pp. 353-395, 1993.
- [12] T. Leventhal, Brooks-Gunn J.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the effects of neighborhood residence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ol Bull, Vol. 26, pp. 309-337, 2000.
- [13] R. J. Sampson, J. D. Morenoff, T. G. Gannon-Rowley, "Assessing neighborhood effects: Social processes and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8, pp. 443-478, 2002.
- [14] C. Cubbin, S. Egerter, P. Braveman, V. Pedregon, "Where we live matters for our health: Neighborhoods and health. Princeton", NJ: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2008.
- [15] I. Y. Jeong, "A Study on Neighborhood Disorder Influencing Adolescent Depression",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 60, No. 4, pp. 1135-1168, 2012.
- [16] H. A. Kang, "Poverty, Risky Environments of Disadvantageous Neighborhoods, and Adolescents' Depression and Anxie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1, No. 3, pp. 327-348, 2010.
- [17]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2012, Risk factors reported in Korean studies.
- [18] K. S. Kim, N. A. Yong,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Suicidal Cognitive Pattern in Adolescenc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1, pp. 221-248, 2005.
- [19] S. H. Jun, "The Effects of Neighborhood on Youth's Mental Health",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1, No. 2, pp. 1-22, 2004.
- [20] Aneshensel Carol S, Clea A. Sucoff, "The neighborhood context of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pp. 293-310, 1996.
- [21] E. O. Park,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e Attempt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Journal Korean Acad Nurs, Vol. 38, No. 3, pp. 465-473, 2008.
- [22] P. Wu, C. W. Hoven, X. Liu, P. Cohen, C. J. Fuller, D. Shaffer, "Substance use,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34, pp. 408-420, 2004.
- [23] R. M. Bossarte, M. H. Swahn, "The associations between early alcohol use and suicide attempts among adolescents with a history of major depression", Addictive behaviors, Vol. 36, No. 5, pp. 532-535, 2011.
- [24] D. F. Perkins, K. R. Jones,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and Neglect, Vol. 28, No. 5, pp. 547-563, 2004.
- [25] K. E. Bostik, R. D. Everall, "Healing from suicide: Adolescent perception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Vol. 35, pp. 79-96, 2007.
- [26] A. C. Park, C. Y. Woo, "The relationship among high school students' attachment for their parents and peers depending on gender, self-ident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levels", Korea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Vol. 22, pp. 69-85, 2008.
- [27] B. L. Paulson, R. D. Everall, "Suicidal adolescents: Helpful aspects of psychotherapy",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Vol. 7, pp. 309-321, 2003.
- [28] Y. M. Kim, "Analysis of Neighborhood Disorder

Influences upon Adolescent Depressio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24, No. 4, pp. 29-50, 2008.

- [29] Y. M. Kim, "Relationships between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Maladaptation: Mediating Effects of Family Process and Gender Group Difference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8, No. 11, pp. 209-237, 2011.

저자소개

신 승 옥(Seung-Ok Shin)

[정회원]



- 2014년 8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14년 3월 ~ 2015년 4월 : 전북과학대학교 조교수
- 2015년 4월 ~ 현재 : 동강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지역보건, 보건정책, 건강증진, 뇌졸중

박 중(Jong Park)

[정회원]



- 1999년 2월 : 전남대학교 의학과 (의학박사)
- 1993년 3월 :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관심분야> : 예방의학, 보건학, 의학